

“전남 지방소멸 대응 생활인구지원센터 설립해야”

전남연구원, 4대 유입 전략 제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415만명
런케이션·위킹홀리데이 등 운영
“타깃마케팅·행정적 뒷받침 필요”

전라남도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생활인구 유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칭 ‘전남생활인구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남지역 특성을 살린 ‘전남형 런케이션’, ‘전남형 청년 위킹홀리데이’ 등 확실한 ‘타깃’과 ‘꺼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전남 생활인구 유입,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좌우’ 리포트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남형 생활인구 유입의 4대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외에도 통근, 통학, 관광 등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회 이상인 체류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한 개념으로, 2026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에 생활인구 수가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분기별)’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남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415만 명이며, 이중 체류인구가 344만9400명으로 등록인구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 인구감소지역의 1인당 평균 카드지출액(약 11만2000원) 중 체류인구 비중이 약 46.7%를 차지했으며, 관광형 체류인구 중에서도 30세 미만, 비인접사·도 거주자, 외국인의 비율이 전국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형 체류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5월 15일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으며, 전라남도과 시·군이 함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전략으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과 연계한 내외국인 대학생 대상의 ‘전남형 런케이션(Learncation)’을 제안했다. 국내외 대학의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전남 해양스포츠 체험, 섬 탐방, 지리산 등반 등 특색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 지역적 경험을 형성한다는 취지다.

런케이션은 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전 연령층이 교육을 통해 관심 있는 지역과 관계를 맺고 배움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지역체류 활동 유형을 말한다.

또한, ‘전남형 청년 위킹홀리데이’ 도입을 통해 내·외국인 청년이 농어촌 활동, 호텔·게스트하우스, 액티비티 스탬 등 지역특화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왕복 교통비, 근무지 인근 숙소,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전남 소도시를 연계한 광역관광을 추진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확실한 테마와 이동 동선을 갖춘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심미경·정철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활인구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인구로, 정교한 타깃마케팅과 행정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며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통계분석과 프로그램 발굴·운영 업무를 수행할 ‘전남생활인구지원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모기 방역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2일 광주 북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임동 챔피언스필드 앞 서방천에서 모기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질병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확대된 모기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김양배 기자

광주보건환경연, 먹는물 최우수 분석 국제인증

美 환경자원학회 국제숙련도 시험
중금속 등 17개 항목 모두 ‘만족’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하는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먹는물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을 검증받고 검사결과와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숙련도 시험평가기관 중 한 곳인 ERA에서 실시하는 시

험에 참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먹는물 분야 평가항목인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17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 평가를 받았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연구원의 분석능력 우수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연구원의 검사 전문성과 데이터 신뢰도를 높여 시민이 먹는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경자청, 빛그린산단 지적기준점 도색 완료

토지 경계·위치 결정 중요 시설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지적기준점(도근점) 135점에 대한 표지 도색 작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하는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와 병행해 이번 도색 작업을 추진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적측량 작업 때 현장에서 지적기준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등 지적기준점 표지의 시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도색된 표지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로고와 문구도 함께 표기해 시민들에게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알리고, 지적기준점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적기준점은 토지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며 “이번 도색 및 마킹 작업을 통해 시민들이 지적기준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준점 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킴이

중소기업공제기금



홍보대사
박상원



부금 만기이자 적립

월10~300만원(3/4/5년)
가입 후 1개월이상 경과, 대출 가능



운영자금대출

무보증·무담보
부금잔액 최대 3배 이내



매출채권대출

(전자) 어음 대출
부금잔액 최대 7배 이내



비대면 원클릭 대출

온라인 즉시 대출
부금잔액 1.5배 이내

가입문의 1668-3984 | fund.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5-9호(2025.1.14.~2025.12.31.)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s://fund.kbiz.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